

김포시, 2035년까지 계획인구 73만8000명...도시기본계획 승인

등록 2022.02.07 12:54:58

"내년 인구 50만명 넘어 대도시 진입"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주요 지표 설정.(사진은 김포시 제공)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가 오는 2035년까지 인구 73만8000명 규모의 수도권 핵심도시로 성장하는 청사진을 수립했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5년 김포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시민이 평화로운 삶, 함께 발전하는 기회 도시 김포'를 미래상으로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안을 공청회를 통해 알렸다.

이후 지난해 3월 31일 경기도 승인신청을 시작으로 10개월가량 행정절차를 거치며 보다 완성도 높은 계획으로 수립됐다.



[김포=뉴스시스] 정일형 기자 = 공간구조 구상도. (사진은 김포시 제공)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각종 기반, 편의시설의 지표나 행정, 교육, 복지,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인구를 바탕으로 계획되기 때문에 '계획인구'가 중요하다.

계획인구는 주거·상업·공업 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 46.057km² 확보와 더불어 개발사업 등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이끄는 동력이다.

중전 '202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 59만 명 대비 증가된 계획인구 14만8000명은 김포한강신도시의 계획인구 15만 명과 맞먹는 규모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풍무역세권과 한강시네폴리스와 같이 이미 본궤도에 오른 사업 외에도 신규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현재 신규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기반시설의 확보를 역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기반시설로 환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도시마다 계획인구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김포시는 철도와 도로로 대표되는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상급 기관에서 확정하거나 추진 중인 철도와 도로망 계획에 김포시 자체 계획을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대폭 반영했다.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부동산 가치가 오를 만큼 개발이익을 적극 환수해 광역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한다. 의료, 교육, 사회 복지, 공원 등 각종 계획지표를 채워나가면서 시민들이 개발이익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대학병원과 대학교, 대형복합쇼핑몰, 백화점 등 도시발전에 필수적인 시설의 유치도 인구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는 내년부터 인구 5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진입한다.

시는 행정권한이 대폭 확대되면서 생활 만족도와 자긍심 높은 자족도시를 향한 다양한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경제와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드디어 완성됐다"면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자긍심 높은 도시, 지속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오르는 김포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